

김영록 지사, 한센인의 날 기념식서 치유·포용 정신 강조

복지와 인권 향상·편견 없는 사회 위한 연대 의지 다져
복지부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조속한 추진 건의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센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센인 1천여 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함께해 한센인의 인권 향상과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

또한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묵묵히 헌신한 마리아나스와 마가렛 두 분의 숭고한 사랑과 봉사 정신도 재조명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68명)에게 생계비 지원 ▲정착마을(8개소)과 생활시설인 여수애양평안요양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한센병관리협회(2개소) 보조금 지원 등 한센인 생활안정과 실질적 지원에 힘써왔다.

김영록 지사는 “개원 100주년을 맞은 이곳 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생명 존엄을 지켜온 상징적 공간으로 한센인 삶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이라며 “전남도는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장관에게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요양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염선호 기자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발길 닿는 곳마다 복지 향기 가득!

어깨동무봉사단 올해 일곱번째 활동, 도화면 지호마을에서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5일 도화면 지호마을에서 지족리 4개 마을(지호, 죽도, 단장, 내촌) 주민 410명을 대상으로 올해 일곱 번째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어깨동무봉사단은 2007년 시작돼 이번이 260번째 활동으로, 고흥군 자원봉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70여 명의 자원봉사자

가 참여해 방충망 수리, 칼갈이, 돌보미 제공 등 30여 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칼갈이와 방충망 수리가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조대정 부군수는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에 임하는 단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5월 29일 도양읍 장수마을에서 장계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261회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읍, 효심(孝心)으로 하나되다

어버이날 맞아 마을 곳곳에서 감사의 마음 전해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강진읍분회를 중심으로 기동마을, 춘곡마을, 폭리마을 등 강진읍 각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강진읍 각 마을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카네이션 전달과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강진읍 기동마을에서는 구순(九旬)을 맞은 어르신을 위한 기념 케이크 커팅 행사가 열려 분위기를 더욱 뜻깊게 했

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시간으로, 마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바쁜 가운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미소를 지었다.

임창복 강진읍장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버이날 행사는 세대 간의 정을 나누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버이날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읍 전 마을이 함께 참여한 효(孝)의 실천 현장으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강진/손경설 기자



함평군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음 담은 한 끼 전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두 번째 ‘오늘, 마음을 담다’ 사업을 실시하며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함평군은 15일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20가구에 직접 밀반찬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른 아침부터 장조림과 양파김치, 잔멸치볶음 등 밀반찬 3종을 직접 만들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행구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소외

계층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필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마음까지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9년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밀반찬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7월에 ‘기운찬 한 끼’ 사업으로 취약 계층에게 기력보충 한 끼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6년 만에 돌아온 순천소녀시대 할머니들의 가슴 찡한 편지

순천소녀시대의 두 번째 책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

순천시(노규시장)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그림책도서관 프로그램 <내 인생 그림일기>의 성과물로 출간된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출판: 남해의 봄날)의 출간을 기념하여 순천소녀시대의 작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2019년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미국, 불로냐 등 해외 전시에 이어 방송으로도 주목받은 순천소녀시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이야기다.

6년 만에 생애 첫 편지를 손에 쥐고 돌아온 순천 할머니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세상에 내놓게 되

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는 14명의 순천 할머니의 말로는 다 담지 못했던 마음을 담은 편지글 모음집으로 그림책도서관 <내 인생 그림일기> 프로그램을 통해 할머니들의 삶의 조각을 표현해 더 깊어진 감동과 함께 독자를 찾아간다.

노규 시장은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찡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영향을 주는 책”이라며 “앞으로 글쓰기에서 출판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문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책을 품은 문화도시 순천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여러 기관과 교류하고 작가 북토크 등을 통해 국내외 많은 독자들을 만나 『글을 몰라 이제야 전하는 편지』가 세대를 넘어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